



전기안전공사, 민간발전사 기술협력 워크숍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민간발전사의 기술력 향상과 국가 전력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최신 기술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5일 경남 통영시 통영북항화력발전소에서 '2025 KESCO-민간발전협회(IPPA) 기술협력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형 가스터빈 국산화 및 수소터빈 기술 개발 △분산·상용 발전을 위한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KESCO 제품검사(연료전지·풍력발전) 제도 등 6건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첨단 기술개발의 성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며, 민간 발전 업계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력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힘을 모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 '우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 전 시상식'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며 지역 농촌공간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하여 농산어촌의 매력과 가치를 살린 공간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다양한 사례 중 무진장지사가 제안·추진한 '세대와 이웃을 어울려 이어가는 천년의 마령'(진안군 마령활력센터 조성)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농촌공간 재생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과로, 이양희 무진장지사장과 진안군청 성민기 담당자가 공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안=우태만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는 지난 25일 저녁 7시 교내 스타타워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가정을 가족처럼 연결해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연식에는 네덜, 중국, 일본, 베트남 출신 유학생 24명과 이들을 맞이한 지역 가정 24가정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유학생들은 각 가정과 1대 1로 매칭돼 한국 가정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진로 토크콘서트 '호음'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학과장 노정욱)가 진로 토크콘서트를 잇달아 개최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식품영양학과는 지난해부터 식품영양 관련 연구소, 기업,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그린푸드 위탁급식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스포츠영양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해 온 박경선 스포츠영양사 겸 수석메뉴지도위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위탁급식 영양사로서의 기본기를 다지는 동시에,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스포츠영양 분야로 진로를 확장한 과정을 공유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축제 '학문제' 성료...국경·세대 화합의 장

대학본부·총학생회 최초 협력...내·외국인·지역민 어우러진 페스티벌 '성황'

전북대학교 가을 축제인 2025 대동제 '학문제'가 지난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학문제는 역대 최초로 전북대 학생지원처와 국제처, 총학생회가 협력해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지역민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국경과 세대를 아우른 화합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간에 진행된 '다문화 부스'에서는 각국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음식을 나누는 등 오감이 즐거운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이어 열린 '외국인 패션쇼'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유학생들이 런웨이를 걸으며 캠퍼스에 이국적인 활기를 더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밴드가 축제의 막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이들의 열정적인 공연은 축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후 내·국인 학생들의 수준 높은 밴드 공연과 댄스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양오봉 총장은 "올해 학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우리'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대학'을 지향하는 전북대가 지역민을 위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호흡하고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더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이경재 교수, 의왕시 명사 특강 출강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경재 교수가 '2025 의왕시 명사 특강'에 초청, '시 쓰는 경제학자의 유쾌한 경제특강'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 보험, 부동산, 경제는 물론, 증여, 상속, 세테크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경제 상식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특히 경제를 단순한 수치와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시나 인문학적 요소, 그리고 인간적인 통찰을 곁들여 청중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가을 산행철 산악 안전지킴이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복사무소와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항을 공유하고, 가을철 산악 안전지킴이 운영을 앞두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다지기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8월까지 지리산 뱀사골 계곡 일원에서 운영된 시민수상구조대 활동 결과를 점검하며, 물놀이 안전관리 성과 등을 논의했다. 또한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계획도 협의했다. 산악안전지킴이는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동안 지리산 뱀사골 매표소 인근에서 운영되며,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행 안전수칙 안내 △긴급상황 초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현장맞춤형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운영

고창소방서는 지난 25일, 고창읍에 위치한 고창행복원에서 '2025년 3분기 현장맞춤형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안전교육과 복지서비스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고창행복원 관계자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 생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으며, 생활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신규 경찰관 퀴즈대회 개최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 서림지구대는 신규 및 전입 경찰관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생활지명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신고 출동 시 생활지명을 정확히 숙지해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하고, 초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퀴즈대회는 모바일 학습과 모의출동 훈련을 마친 뒤 진행된 최종 단계로 실시간으로 출제되는 생활지명 문제를 맞히며 위치 파악 능력과 신속성을 겨뤘다.

문제는 '구 드림병원지리', '구 소방서 사거리' 등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공식 지명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명을 중심으로 출제됐다. 서림지구대는 지명 숙지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지명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진청, '2025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성료

정부혁신·공공서비스디자인 최우수 2건 선정

농촌진흥청이 지난 24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각 부문 최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3건,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3건 등 총 6건이 발표되었으며, 1·2차 심사와 국민 및 직원 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의 '폐기물이던 농산부산물, 규제 개선 통해 새 활용 산업자원으로 가치 향상'이 차지했다. 농산부산물의 규제와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활용 산업화를 촉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의 'Best 도시재생, 도시농업으로 다모이길'이 선정됐다. 구도시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등 국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정부혁신 부문 우수상은 △'스마트 비료사용처방 서비스'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 극대화(국립농업과학원 토



양물환경과) △'저메탄 사료 소재 개발... 탄소중립 축산 실현 첫걸음'(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이 수상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부문 우수상은 △'유채유, 건강간식'의 '첫걸음'(국립식량과학원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소리 없는 세상, 전해지는 온기'(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에 돌아갔다.

농촌진흥청은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자체 혁신 과제를 발굴·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 창출에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

IX, '디지털 전환·기관 협업' 국토 콘퍼런스 성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5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K-GEO Festa'에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콘퍼런스'를 열고 미래형 SOC사업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SOC 예산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 정책 기조를 반영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성과와 비전이 공유됐다. 국가철도공단은 토지보상시스템 연계 협력 성과를 발표하며 철도사업 효율화를 강조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 건설사업 디지털 혁신 협력방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토지 행정업무 미래! 디지털 路'를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속·투명한 업무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공유지



취득 절차 개선을 통한 공익사업 효율화 사례를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IX공사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SOC 사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과 융지 보상, 시공 효율화 같은 핵심 과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35사단, 전주보훈요양원서 보훈음악회

육군 제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호국복지의료공단 전주보훈요양원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훈음악회를 개최했다.

35사단 군악중대가 전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실시하는 보훈음악회는 2023년 첫 시작으로 벌써 3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전주보훈요양원에 계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80여분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익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